

이재명 '매타버스' 출발...박스권 지지율 탈피 '시동'

〈매주 타는 민생버스〉

부·울·경 사흘간 뽀뽀한 일정

경호 물러가며 시민과 접촉

캠핑·토크쇼 2030 스킨십 매진

매끼 식사 차량서 도시락 해결

충청 이어 26~28일 광주·전남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2~14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방문한 부산·울산·경남 현장에서 짧은 층을 겨냥해 몸을 낮췄다. 주말을 이용해 8주간 전국을 누비는 민생 대장정, '매타버스'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 후보는 이번 주말 충청에 이어 오는 26~28일에는 광주·전남을 찾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행선지인 PK에서 이 후보는 사흘간 20여 개에 달하는 뽀뽀한 일정을 바쁘게 소화했다. 부·울·경 땅을 훑으면서도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6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는 사흘 동안 매끼 식사 전부터 차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의 대부분은 전통시장이나 거리를 누비며 시민을 만나거나 2030 세대 및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지역에 가면 통상 진행하던 시의회 방문, 지역 당원과의 만남 등 당 중심의 행사는 전무했다. 이 후보 본인이 이런 행사를 계획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비슷한 일정이 잡혀 있으면 직접 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흘간의 PK 순회 일정 동안 이 후보의 손에는 늘 손바닥만한 수첩이 들려 있었다. 각종 간담회 자리에서 그는 이 수첩에 청년들과 스타트업 관계자, 노사 측의 요청사항을 빼곡히 적었다.

이 후보가 이번 순회에서 경청만큼 강조한 것은 '탈권위'였다. 대권주자로서의 무게감을 내려놓고, 시민들과 스스럼없이 접촉하며 친서민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 일례로 그는 지난 12일 부산 BIFF 광장을 찾아가 자리에서 경호원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시민들을 통제하자 정색을 하며 "(시민들을) 막지 마세요. 놔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뒤 이 후보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이 눈에 보이면 먼저 다가와 허리를 숙여 직접 안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즉석 스킨십'은 다음 일정이 밀렸다는 잠모진의 수차례 만류 끝에야 가까스로 정리됐다.

이밖에도 그는 지난 13일 차박용 차량을 활용한 '명심캠핑'에서 예비 신혼부부와 만나 연애와 사랑, 결혼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해주었다. 사회 현안에 대한 무거운 언급은 일체 없었다. 지난 14일 MZ세대와의 '마자요 토크'에서는 항공우주 분야 관련 즉석 퀴즈쇼를 진행, 답이 틀릴 경우 청년 연구원들에게 뺑망치로 맞는 '벌칙'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의 이러한 모습은 대선 레이스 초반 '현장 밀착형 행보'를 강화해 경선 이후 줄곧 30%대에 머물러 있는 박스권 지지율을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존 친문 성향 정치인들과 다른 자신의 탈엘리트적 이미지를 전파, 야당의 '정권 교체 프레임'을 인물 경쟁력으로 돌파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이 후보의 최대 강점은 스스로가 약자 출신이라 서민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몸으로 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의 강성 이미지만 부각되고, 소탈한 모습이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타버스 행사는 이 후보의 강점인 '스킨십'을 최대한 살릴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요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앞서 대선승리를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윤석열 후보에 축하난...“대선 엄정중립 약속”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달

“특검 얘기는 오간 것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뜻을 담은 난을 보냈다. 윤 후보는 공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안부를 물었는데 이어 비공개 전환 이후 '대선 엄정중립'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윤 후보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윤 후보가 지난 5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이다. 이 수석

은 애초 지난 8일 윤 후보를 예방해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려다 일정 조율 문제로 예방직전 이를 취소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우리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십니까"라고 안부를 물었고 이 수석은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까만 피곤이 누적돼서 대통령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하시고, 당신도 두 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까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여사님과 두 분 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라는 인사를 이 수석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는 '대선 중립'에 대한 '빠' 있는 대화가 있었다. 윤 후보가 먼저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이 수석이 "그 말씀을 대통령께 다시 가서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선거에 대한 엄정중립을 하겠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이 수석 대변인은 "지금 총리와 행안부·법무부 장관에 정치인 출신이 있으면 윤 후보가 '선거에 대한 중립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언급됐는지에 대해서 "특검 얘기는 오간 게 없다. 특검은 민주당과의 관계이고, 대통령이 할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제4기 달빛동맹 출범...광주-대구 협력 강화

민관협력위→발전위 확대·개편

경제·산업 등 동반성장 사업 발굴

달빛고속철도 건설과 2038 하계아시아게임 공동유치를 추진 중인 광주시와 대구시가 상호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제4기 달빛동맹을 출범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15일 오후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달빛동맹을 강화하는 '달빛동맹 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또 기존 민관협력위원회를 발전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인력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지난 7월6일 광주역에서 열린 '대구·광주 달빛동맹 발전'을 위한 협약식 후속 조치로, 양 시는 지난 1일 민관 교류 중심의 조례를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공포했다. 또 기존 공동협력사업은 물론 경제와 산업 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등 상생발전 방안을 심의하는 등 기능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발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새롭게 출범한 제4기 달빛동맹 위원회는 5·18과 2·28 교류 등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과 2038 하계아시아게임 공동유치 등 영호남 상생발전을 앞당기는 구심체가 될 것"이라며 "문화·관광, 교통, 환경, 과학기술 등 민간 교류 뿐 아니라 경제와 산업, 행정통합 추진 등 행정교류 분야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영호남 공동번영과 화합을 위해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교차 참석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선 다자대결, 윤석열 45.6%·이재명 32.4% KSOI 조사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의 지지율은 45.6%로 이 후보(32.4%)를 13.2%포인트 앞섰다.

이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4.9%,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4.0%,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1%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윤 후보(2.6%포인트 ↑)와 이 후보(1.2%포인트 ↑) 모두 올랐지만 윤 후보의 상승폭이 더 컸다. 윤 후보는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20대에서는 하락했다.

이 후보는 서울에서 상승한 반면 인천·경기에서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상승했고, 30대에서 하락했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후보가 50.2%로 이 후보(36.0%)와 14.2%포인트 격차가 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2	2
사 범	유아교육과	31	3
예 능	음악학부	7	3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사로 36